

교사-부모 협력과 교사-영아 상호작용 간의 관계에서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 Care Teacher's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Parent Partnership and Teacher-Infant Interactions

박보경¹ 박선영² 이시은³

Bokyung Park¹ Seon-Young Park² Sieun Lee³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on infant care. Specifically, this study explored the direct effect of teacher-parent partnership on teacher-infant interactions and the indirect effect through teacher sensitivity.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16 teachers in charge of infant classes at child care centers located in Gyeonggi-do. They responded to questionnaires on teacher-parent partnership, their sensitivity, and teacher-infant interactions.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First, teacher-parent partnership did not have a direct impact on teacher-infant interactions. Second, teacher-parent partnership indirectly influenced teacher-infant interactions through teacher sensitivity. In other words, a high level of teacher-parent partnership was associated with a high level of sensitivity, subsequently resulting in the provision of high-quality interactions for infants.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confirmed the role of teacher sensitivity as a mechanism to explain how teacher-parent partnership is linked to teacher-child interactions. The result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in enhancing teachers' sensitivity and, ultimately, providing high-quality child care to infants.

* 본 논문은 2023년 한국보육지원
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제1저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2 교신저자

충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mail: herheyday@hotmail.com)

3 공동저자

시립힐스광교어린이집 원장

key words teacher-parent partnership, sensitivity, teacher-infant interactions

I. 서론

영아의 발달 및 적응에 있어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각각 영아를 돌보는 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는 Bronfenbrenner(1979, 1986)의 생태학적 이론에 따르면 중간체계가 되며, 이러한 중간체계가 지지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맺을 때 영아는 보다 긍정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는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경험이나 성취 또는 영아의 신체적 및 정서적 상태 등에 대해서도 활발히 의사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영아기의 경우 아직 언어가 미숙한 시기라 자신

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욕구나 요구에 맞는 적절한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은 더욱 강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아의 삶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회적 상황인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각각 영아의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와 교사 간의 협력이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영아를 보육하는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교사와 부모 간의 협력이나 의사소통에 대해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교사와 부모 간 높은 협력 수준이나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교사의 교사효능감(류경희, 강상, 2015), 놀이교수효능감(리우위에, 이아름, 2022; 이경남, 2019a; 이시은 등, 2021), 직무만족도(최혜주, 문수백, 2013), 행복감(김은주, 2021) 등을 높이고, 직무스트레스(이민아, 임선아, 2018), 심리적 소진(박은숙, 2018), 이직의도(노혜경, 2021; 이민아, 임선아, 2018) 등을 낮추며,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이다은, 안선희, 2022). 또한, 이는 영유아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적응을 높이거나(강경화, 2013; 박진현, 손인숙, 2000), 영아의 사회정서발달(방글이, 2015; Lang et al., 2020) 또는 유아의 친사회성(장혜인, 박주희, 2019)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이, 교사 뿐만 아니라 영유아에게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 현장에서 교사-부모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지각하는 교사-부모 협력은 가정환경의 질(배진희, 김지현, 2017)이나 양육행동(김지원 등, 2022), 부모-자녀 상호작용(Owen et al., 2000), 부모-자녀 갈등(Lang et al., 2020)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부모 간의 관계에 관심을 둔 연구자들은 보육자와 부모 간 의사소통의 빈도가 보육의 질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Ghazvini & Readdick, 1994), 교사와 부모 간의 관계는 교사와 18~40개월 영유아(Jeon et al., 2021) 또는 만 3~6세 유아(Chung et al., 2005)와의 관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Chung 등(2005)의 연구에서는 교사와 유아 간 관계의 질을 예측하고자 했을 때 특히 교사와 부모 간의 관계가 교사의 교육수준이나 교사로서의 경력, 교수효능감 등과 같은 변인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발휘함을 발견하여, 교사와 부모 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Owen 등(2000)은 보육자와 부모 간의 파트너로서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협력적인 문제해결이나 양육을 위해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추구하는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에서는 교사-부모 협력이 교사가 유아에게 보이는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연구들에 의하면, 보육자와 부모 간 협력 수준이 높을수록 보육의 맥락에서 보육자는 만 3세 유아에게 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Owen et al., 2000),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관찰한 경우에도 교사-부모 간 협력이 활발하다고 지각한 교사는 만 3~5세 유아에게 부정적 상호작용을 덜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임우영, 안선희, 2011). 뿐만 아니라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교사의 자기보고로 측정한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교사-부모 간 협력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는 만 3~6세 유아에게 질 높은 상호작용(강미숙 등, 2018)이나 우호적인 상호작용(장혜인, 박주희, 2019)을 많이 보이는 반면, 신체적 체벌(Khoury-Kassabri et al., 2014)을 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교사-부모 간 협력이 보육 현장에서 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이나 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나, 국내의 경우 영아보다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본 연구는 교사-부모 협력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교사-부모 협력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교사-부모 간 협력 수준은 교사 측면에 영향을 줌으로써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교사의 특성 가운데 민감성에 주목하였는데, 교사의 민감성은 아동의 요구나 필요를 인식하고 아동의 발달이나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Gerber et al., 2007). 교사와 부모 간에 영아의 경험과 행동에 대해 정보를 추구하고 공유하는 의사소통은 교사에게 영아에 대한 더 많은 지식과 통찰을 제공해줄 것이며, 이를 통해 교사는 영아의 욕구나 요구, 필요 등 개별적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어 영아에게 높은 민감성을 보일 수 있고 이는 영아에게 높은 질의 상호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아는 발달단계상 언어적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의사를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아의 신호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적절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인 민감성은 특히 영아반 교사에게 매우 중요하다.

교사-부모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부모가 영아에 대해 독특하게 알고 있는 바나 가족 경험 등을 공유한다면, 교사는 영아의 요구나 경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됨으로 영아에게 더욱 큰 민감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사-부모 협력이 교사의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므로, 국내에서는 이경님(2019b)의 연구만이 보고되고 있다. 0~2세 반을 담당하는 영아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경님(2019b)의 연구에서는 교사-부모 협력이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교사의 민감성을 방해함을 밝힌 연구들도 보고된다(오정윤, 2011; 정유정, 김진옥, 2017). 오정윤(2011)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최종학력, 총 근무경력, 보육효능감, 보육신념, 직무스트레스 등 개인 변인과 급여, 총 근무시간, 담당 아동수 등 근무환경 변인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교사의 긍정적 민감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본 연구는 교사-부모 협력이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가정하였다. 선행 연구들로 미루어 볼 때, 교사-부모 협력과 교사의 민감성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영아반 교사는 교사-부모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영아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민감성이 높은 영아반 교사는 영아와 질 높은 상호작용을 더 많이 보일 것이다. 민감성은 아동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이며 일관성있게 행동하고 아동의 신호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Rimm-Kaufman et al., 2002),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교사의 민감성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한다. 예를 들어, 민감성이 높은 영아반 교사는 영아에게 질 높은 상호작용을 보였는데(김기철, 신애선, 2016; 박노영, 박용임, 2018; 우수경, 2018), 구체적으로 적절성, 정확성, 즉시성, 일관성, 융통성 등과 같은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의 하위요인들은 적극적인 활동 참여, 경험의 다양성, 교사의 반응적 태도, 교사의 허용적 태도 등과 같은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하위요인들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우수경, 2018). 또한,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

수준은 영아 가르치기, 활동 상의 요구 및 제안하기 등과 같은 긍정적 상호작용과는 정적 상관, 금지 및 지시하기, 과도한 언어로 반응하기, 무반응 또는 단순한 반응하기, 멍하니 앉아있기, 불필요한 행동하기 등과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홍은숙, 부성숙, 2015). 뿐만 아니라 민감성이 높은 교사는 낮은 교사보다 유아에게 정서적 및 언어적 상호작용을 보다 많이 보였으며(장윤정, 황윤숙, 2017), 교사의 민감성은 교사-영유아 간 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ayer & Beckh, 2018).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본 연구는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교사-부모 협력이 교사의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과 교사의 민감성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선행 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는 교사-부모 협력이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을 매개로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비록 본 연구와 같이 교사-부모 협력,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 및 교사-영아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함께 고려한 선행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우나, 몇몇 선행 연구들에서는 교사-부모 협력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매개변인이 존재함을 확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최해주와 문수백(2013)의 연구에서는 교사-부모 협력이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통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박경애와 도미향(2022)의 연구에서는 교사-부모 협력이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근거할 때, 교사-부모 협력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교사의 직무만족도나 심리적 안녕감 등과 같은 교사의 개인적 특성이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사의 직무만족도나 심리적 안녕감 외에도 교사-부모 협력 및 교사-영아 상호작용과 모두 그 관련성이 밝혀진 교사의 민감성 역시 양자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영아의 발달 및 적응에 있어 주요한 두 주체인 부모와 교사 간에 원활히 소통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영아 보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사-부모 협력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을 매개로 미치는 간접적 영향에 대해 탐색해보았다.

연구문제 1. 교사-부모 협력은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교사-부모 협력은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을 매개로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유의표집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 집에서 만 2세 이하의 영아반을 담임하고 있는 216명의 보육교사들이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교사의 연령은 30세 이하가 20명(9.3%), 31~40세가 80명(37.0%), 41세 이

상이 116명(53.7%)이었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3명(15.3%), 대학교 졸업이 173명(80.1%), 대학원 졸업이 10명(4.6%)이었으며, 자격사항은 보육교사 1급이 154명(71.3%), 보육교사 2급이 59명(27.3%), 보육교사 3급이 3명(1.4%)이었다. 교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31명(14.4%), 민간어린이집이 142명(65.7%), 가정어린이집이 37명(17.1%), 직장어린이집이 3명(1.4%), 법인어린이집이 3명(1.4%)이었으며, 담당 학급은 만 0세반이 45명(20.8%), 만 1세반이 84명(38.9%), 만 2세반이 77명(35.6%), 영아 혼합반이 10명(4.6%)이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N = 216)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연령	30세 이하	20(9.3)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어린이집	31(14.4)		
	31~40세	80(37.0)		민간어린이집	142(65.7)		
	41세 이상	116(53.7)		가정어린이집	37(17.1)		
학력	고등학교 졸업	33(15.3)	직장어린이집	3(1.4)	법인어린이집	3(1.4)	
	대학교 졸업	173(80.1)		담당 학급		만 0세반	45(20.8)
	대학원 졸업	10(4.6)				만 1세반	84(38.9)
자격사항	보육교사 1급	154(71.3)	만 2세반		77(35.6)	영아 혼합반	10(4.6)
	보육교사 2급	59(27.3)					
	보육교사 3급	3(1.4)					

2. 연구도구

1) 교사-부모 협력

교사-부모 협력을 측정하기 위해 Owen 등(2000)이 제작한 Caregiver-Parent Partnership Scale을 번역한 임우영과 안선희(2011)의 척도를 영아반 교사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유아’를 ‘영아’로, ‘교육’을 ‘보육’으로 수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정보공유(6문항), 정보추구(3문항), 상호관계(5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정보공유는 ‘나는 영아가 그날 어린이집에서 힘들게 보냈다면 이를 부모에게 얘기해준다.’, 정보추구는 ‘나는 부모들에게 영아가 집에 있을 때의 행동은 어떤지 물어본다.’, 상호관계는 ‘나는 부모가 보육에 필요한 교구교재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경우, 그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반 교사가 지각하는 교사-부모 간 협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교사-부모 협력의 Cronbach’s α 는 정보공유가 .82, 정보추구가 .80, 상호관계가 .84였다.

2) 교사의 민감성

교사의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민광미와 이지현(2015)이 개발한 영아반 교사 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2문항으로, 적절성(9문항), 정확성(6문항), 즉시성(8문항), 일관성(4문항), 융통성(5문항)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적절성은 ‘나는 영아들과 말할 때 낮은 자세로 눈을 맞추고 이야기한다.’, 정확성은 ‘나는 영아들의 개인적인 생리적 요구를 알 수 있다.’, 즉시성은 ‘나는 영아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해결해주려고 한다.’, 일관성은 ‘나는 영아들의 요구에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 융통성은 ‘나는 영아들의 놀이에 관심을 갖고 영아의 개별특성에 맞게 반응해준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반 교사가 스스로에 대해 인식하는 민감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교사의 민감성의 Cronbach's α 는 적절성이 .93, 정확성이 .90, 즉시성이 .89, 일관성이 .81, 융통성이 .92였다.

3) 교사-영아 상호작용

교사-영아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Bradley 등(2003)의 Infant-Toddler Child Care HOME과 국내의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임옥희와 이진숙(2006)이 개발한 보육교사-영아 상호작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9문항으로, 적극적인 활동 참여(10문항), 경험의 다양성(8문항), 교사의 반응적 태도(8문항), 교사의 허용적 태도(3문항)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적극적인 활동 참여는 ‘영아가 주변을 탐색하고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경험의 다양성은 ‘영아의 호기심과 사고를 북돋아 준다.’, 교사의 반응적 태도는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로 영아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교사의 허용적 태도는 ‘화가 나도 영아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반 교사가 영아에게 보이는 상호작용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Cronbach's α 는 적극적인 활동 참여가 .94, 경험의 다양성이 .92, 교사의 반응적 태도가 .91, 교사의 허용적 태도가 .84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는 2020년 11월에 유의표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들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한 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만 2세 이하의 영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원하는 교사들이 설문에 응답하여 24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24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16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IBM Co., Armonk, NY)와 AMOS 22(IBM Co., Armonk, N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셋째, 예비분석으로 교사-부모 협력,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과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기술통계를 산출하고, 세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넷째, 본 분석으로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먼저 실시한 후, 교사-부모 협력과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예비분석

예비분석으로 교사-부모 협력,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 및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기술통계를 산출하고 이들 변인 간에 Pearson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인들은 왜도의 절대값이 2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7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의 기준 (West et al., 1995)을 충족하였다. 더불어, 모든 측정변인들 간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사-부모 협력의 하위요인들과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정적 상관이 나타나($r_s = .24\sim.47, p < .01$ 또는 $p < .001$), 교사-부모 간 협력 수준이 높을수록 영아반 교사가 영아에게 보이는 상호작용의 질이 높았다. 교사-부모 협력의 하위요인들과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의 하위요인들 간에도 정적 상관이 나타나($r_s = .26\sim.43, p < .001$), 교사-부모 간 협력 수준이 높을수록 영아반 교사가 높은 민감성을 나타내었다.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의 하위요인들과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하위요인들 역시 정적 상관이 나타나($r_s = .43\sim.67, p < .001$), 민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영아반 교사가 영아에게 보이는 상호작용의 질이 높았다.

표 2. 교사-부모 협력,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 및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N = 216)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교사-부모 협력												
1. 정보공유	-											
2. 정보추구	.62***	-										
3. 상호관계	.69***	.72***	-									
교사의 민감성												
4. 적절성	.37***	.31***	.34***	-								
5. 정확성	.39***	.34***	.39***	.72***	-							
6. 즉시성	.40***	.36***	.40***	.75***	.75***	-						
7. 일관성	.33***	.26***	.32***	.63***	.59***	.70***	-					

표 2. 계속

	1	2	3	4	5	6	7	8	9	10	11	12
8. 융통성	.43***	.30***	.36***	.65***	.64***	.68***	.73***	-				
교사-영아 상호작용												
9. 적극적인 활동 참여	.45***	.28***	.42***	.63***	.61***	.63***	.59***	.67***	-			
10. 경험의 다양성	.44***	.29***	.37***	.66***	.61***	.66***	.56***	.62***	.85***	-		
11. 교사의 반응적 태도	.47***	.29***	.33***	.65***	.63***	.62***	.57***	.63***	.79***	.79***	-	
12. 교사의 허용적 태도	.34***	.24**	.29***	.47***	.43***	.51***	.54***	.50***	.61***	.53***	.55***	-
<i>M</i>	4.42	4.24	3.94	4.15	4.15	4.09	4.02	4.06	4.30	4.36	4.32	3.99
<i>SD</i>	.54	.69	.73	.52	.51	.50	.55	.57	.53	.54	.53	.75
왜도	-1.08	-.77	-.40	-.06	.07	-.05	.07	.04	-.31	-.49	-.46	-.37
첨도	.89	-.14	-.51	-.49	-.31	-.24	-.32	-.50	-.65	-.61	-.41	-.20

** $p < .01$, *** $p < .001$.

2. 교사-부모 협력과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1) 측정모형 분석

교사-부모 협력,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 및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잘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chi^2 = 109.34$ ($df = 51$, $p < .001$), $\chi^2/df = 2.14$, NFI = .95, TLI = .96, CFI = .97, RMSEA = .07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은 모든 지표에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요인부하량(β)은 .64~.92로 모두 .50 이상이었으며(Hair et al., 2006), C.R. 값도 모두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교사-부모 협력,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 및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측정변인들은 잠재변인들을 적절하게 설명하였다.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N = 216$)

모형	χ^2	df	χ^2/df	NFI	TLI	CFI	RMSEA
적합도 기준			< 5	$\geq .90$	$\geq .90$	$\geq .90$	< .08
연구모형	109.34***	51	2.14	.95	.96	.97	.07

*** $p < .001$.

2) 구조모형 분석

교사-부모 협력과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chi^2 = 109.34$ ($df = 51$, $p < .001$), $\chi^2/df = 2.14$, NFI = .95, TLI = .96, CFI = .97, RMSEA = .07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교사-부모 협력과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첫째, 교사-부모 협력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9, p > .05$). 둘째, 교사-부모 협력이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을 매개로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사-부모 협력은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beta = .51, p < .001$),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은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 = .79, p < .001$). 즉, 교사-부모 간 협력 수준이 높을수록 영아반 교사는 높은 민감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영아반 교사가 영아에게 보이는 상호작용의 질이 높은 것으로 연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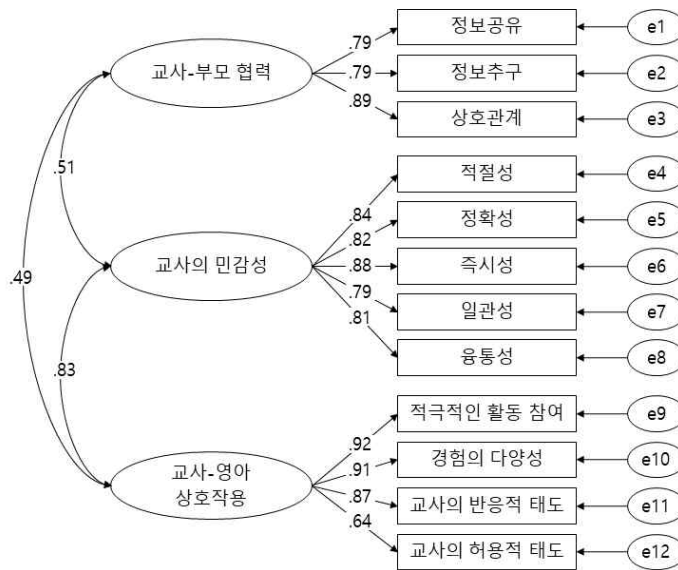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표 4.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N = 216)

경로	B	β	SE	C.R.
교사-부모 협력 → 교사-영아 상호작용	.10	.09	.07	1.59
교사의 민감성 → 교사-영아 상호작용	.89	.79	.08	11.62***
교사-부모 협력 → 교사의 민감성	.52	.51	.08	6.7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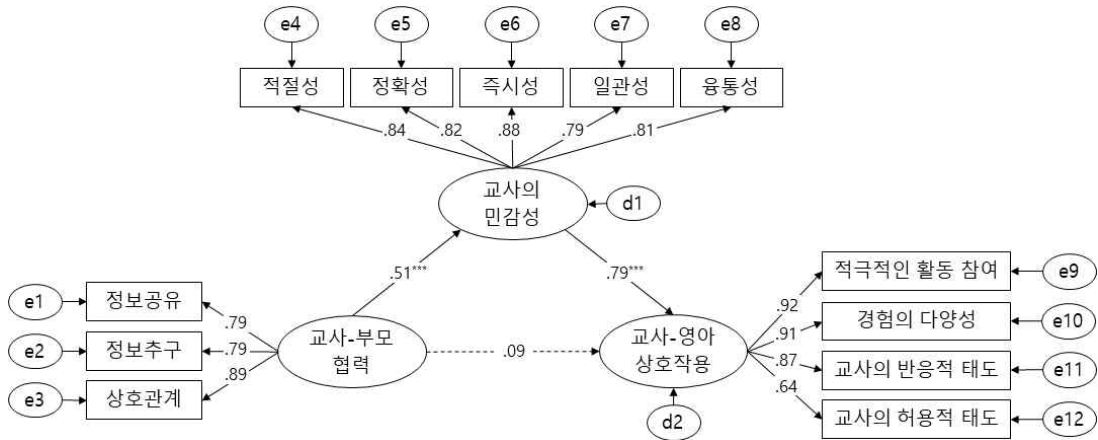


그림 2. 교사-부모 협력과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마지막으로 교사-부모 협력과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교사-부모 협력이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을 매개로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beta = .40, p < .01$). 또한, 다중상관치(SMC)를 살펴본 결과, 교사-부모 협력과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은 교사-영아 상호작용을 70%, 교사-부모 협력은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을 2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구조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N = 216)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교사-부모 협력 → 교사-영아 상호작용	.09	.40**	.49**	.70
교사의 민감성 → 교사-영아 상호작용	.79**	-	.79**	
교사-부모 협력 → 교사의 민감성	.51*	-	.51*	.26

* $p < .05$, ** $p < .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이하의 영아반을 담임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부모 협력과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 및 교사-영아 상호작용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한 결과, 교사-부모 협력은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첫째, 교사-부모 협력과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 및 교사-영아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한 본 연구에서는 교사-부모 협력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부모 간 협력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가 유아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보이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적게 보인다고 보고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강미숙 등, 2018; 임우영, 안선희, 2011; 장혜인, 박주희, 2019; Khoury-Kassabri et al., 2014; Owen et al., 2000)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선행 연구들은 매개변인을 고려하지 않고 교사-부모 협력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만 다루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한편, 본 연구와 같이 교사의 내적인 특성을 매개변인으로 함께 고려한 최해주와 문수백(2013)의 연구에서는 원장의 변혁적 지도성, 교사-부모 협력, 교사의 직무만족도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동시에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교사-부모 협력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와 최해주와 문수백(2013)의 연구에서는 모두 매개변인을 함께 고려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경우 이처럼 교사-부모 협력이 영아 또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상관관계를 산출하였을 때는 양자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았을 때 본 연구의 결과를 교사-부모 협력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이 교사-부모 협력보다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부모 협력은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을 매개로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교사-부모 간 협력 수준이 높을수록 영아반 교사는 높은 민감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영아반 교사가 영아에게 보이는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졌다. 교사와 부모 간에 이루어지는 아동에 대한 의사소통은 아동이 경험하는 가정과 어린이집이라는 두 맥락을 연결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Owen et al., 2000). 따라서 교사와 부모 간에 소통과 협력을 통해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가정의 맥락에서 영아의 행동이나 경험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때 교사는 영아의 경험이나 반응의 의미를 보다 민감하게 이해할 수 있고 더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의 발달을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같이 교사-부모 협력과 교사-영아 상호작용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을 탐색한 선행 연구가 아직까지는 매우 드물지만, 소수의 연구들은 양자 간의 관계에 매개변인이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앞서 언급한 최해주와 문수백(2013)의 연구는 교사-부모 협력이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매개로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최근에 이루어진 박경애와 도미향(2022)의 연구는 교사-부모 협력이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로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교사-부모 협력은 교사의 민감성이나 직무만족도, 심리적 안녕감과 같은 교사의 내적 특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으로까지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민감성이나 직무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외에도 교사-부모 협력 또는 교사-영유아 상호작용과 관련 있는 교사의 개인적 특성, 예를 들어 교사효능감, 행복감,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등의 매개효과를 다각도로 탐색해볼 필요도 있겠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교사-부모 협력이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을 매개로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교사-부모 협력이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과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 먼저 교사-부모 협력은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에 정적 영향을 미쳐, 교사-부모 간 협력 수준이 높을수록 영아반 교사는 높은 민감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부모 협력이 교사의 민감성을 높인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이경님, 2019b)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교사의 민감성을 낮춘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오정운, 2011; 정유정, 김진옥, 2017)의 결과와 동일한 맥락이다. 교사와 부모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은 교사가 어린이집 외에 가정에서의 영아의 경험과 행동에 대해서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는 영아의 욕구나 요구, 필요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여 영아에게 높은 민감성을 나타내도록 할 것이다. 특히 영아기는 발달단계 특성상 자신의 의사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시기이기에,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는 영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부모와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가정의 맥락에서 영아의 행동이나 경험에 대해서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오정운(2011)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개인 변인과 근무환경 변인을 다양하게 탐색한 가운데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교사의 긍정적 민감성을 가장 잘 예측함을 발견하여 교사와 부모 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선행 연구들에서는 교사-부모 협력이 교사의 민감성 외에도 교사효능감, 직무만족도,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이직의도 등과 같은 다양한 교사의 내적 특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므로(노혜경, 2021; 류경희, 강상, 2015; 박은숙, 2018; 이민아, 임선아, 2018; 최해주, 문수백, 2013)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다음으로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은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정적 영향을 미쳐, 민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영아반 교사가 영아에게 보이는 상호작용의 질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과 교사-영아 간 질높은 상호작용의 정적 관련성은 영아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김기철, 신애선, 2016; 박노영, 박응임, 2018; 우수경, 2018; 홍은숙, 부성숙, 201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신호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적절성, 영아의 신호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공감하는 정확성, 영아의 신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즉시성, 영아의 신호에 항상 일관적으로 반응하는 일관성, 영아의 상태에 따라 융통성있게 대응하는 융통성을 중심으로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을 측정하였다(민광미, 이지현, 2015). 이와 같이 영아가 보이는 신호나 요구를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에 즉각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민감성 수준이 높은 교사는 영아의 개별적인 발달수준이나 특성, 흥미 및 관심사 등을 기초로 높은 질의 상호작용을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보육교사의 민감성 관련 요인에 대해 메타분석한 나의연과 김광용(2021)의 연구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민감성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간에는 .68로 큰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민감성이 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좌우하는 핵심 변인 중 하나임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교사의 민감성이 교사의 측면에서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으나, 몇몇 연구들은 교사의 민감성이 영유아의 발달이나 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이 높을수록 영아는 높은 수준의 사회정서발달을 보이고(유지연, 황혜정, 2015), 어린이집에 보다 잘 적응하였다(김신혜, 성미영,

2020; 송애란 등, 2015). 또한, 15개월 때 사회적으로 대담한(socially bold) 유아는 교사가 민감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치원에서 독립적 행동이나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나타내고 부정적 행동을 덜 나타내었다(Rimm-Kaufman et al., 2002). 이러한 결과들과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교사의 민감성은 교사가 영유아에게 높은 질의 상호작용을 보이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발달 및 적응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교사의 내적 자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민감성 증진에 많은 관심이 요구되며, 보육 현장에서 교사를 재교육하거나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교사-부모 협력이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을 매개로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즉, 영아반 교사는 부모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얻게 되는 영아에 대한 여러 정보를 통해 개별 영아의 욕구나 요구, 필요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게 됨에 따라 영아에 대한 민감성을 강화하고, 영아반 교사는 이러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영아와 보다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교사-부모 협력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강미숙 등, 2018; 임우영, 안선희, 2011; 장혜인, 박주희, 2019; Khoury-Kassabri et al., 2014; Owen et al., 2000)을 보다 확장하여, 교사가 부모와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떻게 영유아와의 관계로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주는 기제로서 교사의 민감성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영아에게 높은 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와 부모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에 보육 현장에서는 교사와 부모 간의 관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사와 부모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및 가정연계 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사-부모 협력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김유정 등, 2012)를 기초로, 교사 측면에서는 교사 교육 시 의사소통능력이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가정연계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편, 정계숙과 노진형(2017)의 연구에서는 부모교육 참여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어머니가 교사와 더 많이 협력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윤정진과 안선희(2019)의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자유선택활동 시 놀이지도, 수업활동 보조, 현장학습 시 안전지도 등 부모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부모와 교사 모두 교사와 부모 간 소통과 협력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미루어보아, 부모 측면에서는 어린이집에 부모가 방문할 수 있는 자원봉사나 부모교육 등의 기회를 자주 마련해주어 부모와 교사 간 접촉을 늘리는 것이 교사와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도록 하겠다. 첫째, 본 연구는 교사-부모 협력,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 및 교사-영아 상호작용 등과 같은 연구변인들을 측정할 때 개별 영아나 개별 영아의 부모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영아반 교사가 이에 대해 지각하는 전반적인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한 부모와의 협력이 어떻게 특정한 영아에 대한 민감성이나 상호작용으로까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부모 협력, 영아반 교사의 민감성 및 교사-영아 상호작용 등을 측정할 때 특정한 영아나 부모에게 초점을 두어 측정함으로써, 특정한 부모와의 협력이 특정한 영아에

대한 민감성을 통해 상호작용으로까지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교사-부모 협력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까지만 확인하였으나,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교사-영아 상호작용은 영아의 발달 및 적응에 중요한 변인이므로, 교사-부모 협력의 영향력은 영아의 발달 및 적응으로까지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장혜인과 박주희(2019)의 연구에서는 교사-부모 협력이 교사-유아 관계를 통해 유아의 친사회성을 증진시킴을 발견하였으며, Jeon 등(2021)의 연구에서는 교사-부모 관계가 교사-영유아 관계를 매개로 18~40개월 영유아의 유능성을 증가시키는 한편 외현화 행동을 감소시킴을 밝혔다. 따라서 추후에는 교사-부모 협력이 교사의 민감성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영유아의 발달 및 적응으로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탐색해볼 수도 있겠다.

참고문헌

- 강경화 (2013). 부모-영아 애착, 부모-교사 협력, 그리고 교사-영아 관계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미숙, 송승민, 박남심, 이승은 (2018).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교사-부모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간의 구조모형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5), 1-17. <https://doi.org/10.14698/jkcece.2018.14.05.001>
- 김기철, 신애선 (2016). 영아교사의 전문성, 민감성, 행복감과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관계 및 영향력. **한국보육학회지**, 16(2), 57-82. <http://doi.org/10.21213/kjceec.2016.16.2.57>
- 김신혜, 성미영 (2020). 만 1세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교사의 민감성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5), 87-103. <https://doi.org/10.14698/jkcece.2020.16.05.087>
- 김유정, 박지혜, 안선희 (2012). 보육교사의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그리고 가정연계 효능감이 부모-교사 협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5), 71-89. <https://doi.org/10.5723/KJCS.2012.33.5.71>
- 김은주 (2021). 유아교사가 지각한 조직문화 및 부모-교사 협력과 유아교사의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성격강점의 조절효과.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원, 안선희, 이슬기 (2022). 아버지 양육참여와 부모-교사 협력이 어머니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2), 15-27.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12.15>
- 나의원, 김광용 (2021). 보육교사의 민감성 관련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5(3), 139-160. <https://doi.org/10.22590/ecee.2021.25.3.139>
- 노혜경 (2021). 어린이집 조직문화와 교사-부모 협력관계가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경희, 강상 (2015). 유아교사의 정서지능, 동료교사 협력관계, 부모-교사 협력관계와 교사효능감 간의 구조모형 분석.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9(2), 203-225.

- 리우위에, 이아름 (2022). 원장의 코칭리더십과 유아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부모-교사 협력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6), 427-437.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16.427>
- 민광미, 이지현 (2015). 영아반 교사 민감성척도 개발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1), 229-249.
- 박경애, 도미향 (2022). 어린이집 원장의 코칭리더십과 교사-부모 파트너십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 **부모교육연구**, 19(2), 31-58. <https://doi.org/10.61400/JPE.2022.19.2.31>
- 박노영, 박응임 (2018). 보육교사의 성인애착이 교사-영아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 9, 33-52.
- 박은숙 (2018).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 및 교사-부모 협력이 심리적소진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현, 손인숙 (2000).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과 부모-교사간의 협력에 따른 유치원 아동의 적응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20, 47-61.
- 방글이 (2015). 부모-교사 협력과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진희, 김지현 (2017).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에 대한 부모-교사 협력관계의 영향력: 가정환경의 질,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6), 143-161. <https://doi.org/10.14698/jkce.2017.13.06.143>
- 송애란, 송승민, 이사라 (2015). 영아의 기질, 교사의 민감성 및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생애학회지**, 5(1), 37-53. <https://doi.org/10.30528/jolss.2015.5.1.003>
- 오정윤 (2011). 보육교사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25-47.
- 우수경 (2018). 영아교사의 학력, 경력, 민감성, 교수효능감 및 어린이집 기관풍토와 교사-영아 상호작용 간의 구조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4), 553-572.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24.553>
- 유지연, 황혜정 (2015).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와의 상호작용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3), 1-23. <https://doi.org/10.14698/jkce.2015.11.3.001>
- 윤정진, 안선희 (2019).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따른 부모-교사 협력의 차이.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6(1), 179-207. <https://doi.org/10.22155/JFECE.26.1.179.207>
- 이경남 (2019a). 유아교사의 경력과 정서지능 및 부모-교사 협력관계가 놀이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9(4), 155-169. <https://doi.org/10.21213/kjceec.2019.19.4.155>
- 이경남 (2019b). 어린이집 조직건강과 부모-교사 협력관계 및 보육효능감이 영아교사의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11(3), 65-84. <https://doi.org/10.36431/JPE.11.3.4>
- 이다은, 안선희 (2022).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부모-교사 협력, 원장의 감성리더십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7), 283-300.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17.283>

- 이민아, 임선아 (2018).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6), 53-67. <https://doi.org/10.14698/jkce.2018.14.06.053>
- 이시은, 송승민, 한정이 (2021). 영아교사의 정서지능이 놀이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사가 인식한 부모-교사 신뢰관계와 협력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7(6), 29-52. <https://doi.org/10.14698/jkce.2021.17.06.029>
- 임옥희, 이진숙 (2006). 보육교사의 교사-영아 상호작용 평가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9(1), 5-13.
- 임우영, 안선희 (2011). 유아교사-부모 협력과 교사-유아 상호작용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4), 323-350.
- 장윤정, 황윤숙 (2017). 유아교사의 전문성 인식 수준 및 민감성 수준에 따른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차이: 만 3~5세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7(2), 181-203. <https://doi.org/10.21213/kjcec.2017.17.2.181>
- 장혜인, 박주희 (2019, 11). **어린이집 부모-교사 협력이 유아의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유아 관계, 교사-유아 관계의 다중매개효과**. 한국아동학회 4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 서울.
- 정계숙, 노진형 (2017). 어머니의 유아교육공동체 구축 태도, 부모교육 참여도 인식 및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 교사와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2), 685-708.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12.685>
- 정유정, 김진욱 (2017). 영아반 보육교사의 교사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정서안정성, 대인관계 스트레스, 근무환경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8(2), 205-218. <https://doi.org/10.5723/kjcs.2017.38.2.205>
- 최해주, 문수백 (2013).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원장의 변혁적 지도성, 그리고 부모-교사 협력관계와 교사-유아 상호작용간의 관계구조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3), 69-88.
- 홍은숙, 부성숙 (2015). 영아교사의 언어적, 행동적 상호작용과 민감성 수준 및 민감성 인식의 관계. **아동교육**, 24(4), 329-349. <https://doi.org/10.17643/KJCE.2015.24.4.18>
- Bradley, R. H., Caldwell, B. M., & Corwyn, R. F. (2003). The Child Care HOME Inventories: Assessing the quality of family child care hom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3), 294-309. [https://doi.org/10.1016/S0885-2006\(03\)00041-3](https://doi.org/10.1016/S0885-2006(03)00041-3)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2307/j.ctv26071r6>
-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6), 723-742. <https://doi.org/10.1037/0012-1649.22.6.723>
- Chung, L.-C., Marvin, C. A., & Churchill, S. L. (2005). Teacher factors associated with preschool teacher-child relationships: Teaching efficacy and parent-teacher relationships. *Journal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25(2), 131-142. <https://doi.org/10.1080/1090102050250206>

- Gerber, E. B., Whitebook, M., & Weinstein, R. S. (2007). At the heart of child care: Predictors of teacher sensitivity in center-based child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2*(3), 327-346. <https://doi.org/10.1016/j.ecresq.2006.12.003>
- Ghazvini, A. S., & Readdick, C. A. (1994). Parent-caregiver communication and quality of care in diverse child care setting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9*(2), 207-222. [https://doi.org/10.1016/0885-2006\(94\)90006-X](https://doi.org/10.1016/0885-2006(94)90006-X)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Pearson Prentice Hall.
- Jeon, H.-J., McCartney, C. M., Richard, V., Johnson, S. J., & Kwon, K.-A. (2021). Associations between parent-teacher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functioning.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91*(15), 2407-2421. <https://doi.org/10.1080/03004430.2020.1711747>
- Khoury-Kassabri, M., Attar-Schwartz, S., & Zur, H. (2014). The likelihood of using corporal punishment by kindergarten teachers: The role of parent-teacher partnership, attitudes, and religiosity. *Child Indicators Research, 7*, 369-386. <https://doi.org/10.1007/s12187-013-9226-2>
- Lang, S. N., Jeon, L., Schoppe-Sullivan, S. J., & Wells, M. B. (2020). Associations between parent-teacher cocaring relationships,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young children's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Child & Youth Care Forum, 49*, 623-646. <https://doi.org/10.1007/s10566-020-09545-6>
- Mayer, D., & Beckh, K. (2018). Sensitivity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s. *Psychologie in Erziehung und Unterricht, 65*(3), 183-193. <https://doi.org/10.2378/peu2018.art10d>
- Owen, M. T., Ware, A. M., & Barfoot, B. (2000). Caregiver-mother partnership behavior and the quality of caregiver-child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5*(3), 413-428. [https://doi.org/10.1016/S0885-2006\(00\)00073-9](https://doi.org/10.1016/S0885-2006(00)00073-9)
- Rimm-Kaufman, S. E., Early, D. M., Cox, M. J., Saluja, G., Pianta, R. C., Bradley, R. H. et al. (2002). Early behavioral attributes and teachers' sensitivity as predictors of competent behavior in the kindergarten classroom.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3*(4), 451-470. [https://doi.org/10.1016/S0193-3973\(02\)00128-4](https://doi.org/10.1016/S0193-3973(02)00128-4)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Sage.

논문투고: 23.12.12.
수정원고접수: 24.01.06.
최종게재결정: 24.01.11.